

도의회 '삼성 새만금특위' 궁금증 풀까

9월1일부터 6개월간 투자협약 배경·투자무산 원인 조사... "가시적 성과 거두기 힘들 것" 시각 지배적

전북도의회가 11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과 새만금 관련 MOU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삼성 새만금 특위)를 구성 결의키로 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양용보 의원 등 11인의 도의원들은 이날 삼성 새만금 특위 구성 결의가 통과되면 오는 9월1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6개월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사범위는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체결 자료 확보 ▲투자 협약 당사자 증인 출석 및 청문 ▲새만금 투자 협약 관련 기관 방문 활동 ▲새만금 관련 MOU 현황 파악 및 투자현황, 협약 파기 현황 ▲새만금 관

련 MOU 체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모색 등이다.

이들은 삼성 투자 무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투자 협약 체결 배경과 투자 무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시작은 좋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활동이 순탄치 않아 보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더 많다.

삼성이라는 대기업과 국무총리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사하기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사 대상 기관이 전북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결국 특위 활동의 실효성과 무게감이 떨어질 것이란 견해가 많다.

실제로 의원들은 이번 삼성 새만금 특위 조사 대상기관을 전북도만 한정, 의욕과 달리 조사범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관련자들이 증인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 서류조사 만으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많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의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력 낭비 책임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고 도민들의 행정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는 지난 2011년 정부(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와 전북도·삼성이 체결했으며 삼성은 2021~2040년 동안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황현 의장, 당선축하 화분 기증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이 당선 축하 화분을 불우이웃 돕기 물품으로 기증했다.

황 의장은 지난 8일 당선축하로 받은 화분 50여개를 아름다운가게 신은찬 간사에게 전달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받은 화분을 시민들에게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황현 의장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보내주신 축하화분에, 보답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담아 다시 소외계층 돕기 물품으로 전달했다"며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김종인-이상호, 사드 도입 '시각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김 대표 홀로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민주 지도부를 찾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보고했다. 김 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대민주 소속 국방위원들이 배석했다.



전주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운영 강동화·행정 오희근·복지환경 양영환·문화경제 이기동·도시건설 이병하 의원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10대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5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5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제10대 하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운영위원장은

강동화 의원, 행정위원장은 오희근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은 양영환 의원, 문화경제위원장은 이기동 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병하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5명의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

다.

김명지 의원은 "후반기에도 '시민의 꿈과 동행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제10대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송성환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상정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11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전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 상정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기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위원을 재위촉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을 행정부지사, 차관, 전라북도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 전라북도교육청·전라북도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책임자로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한편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됐다. /신광영 기자

김종대 "사드 배치,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결정"

"어제 NSC 회의서 급하게 결정...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 직접 접촉"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8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화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서 거기서 긴급히 결정됐다고 털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나 대화

를 나누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한 국방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가 임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제 원래 입장이 맞는데 청와대가 나선 것"이라며 "자주 국방장관이 사드 논리에서 밀리고 사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확산되니까 NSC 상임위

를 열어서 국방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이런 대화 통로에 의해 결정됐다"며 "결정이 되면 국방부 사후 수습처리하기 바쁜 이런 형태로 사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부지도 압축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단수 후보인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부지 하나를 검토해보고 맞나 아니냐해서,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뉴스

를 열어서 국방부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하는 이런 대화 통로에 의해 결정됐다"며 "결정이 되면 국방부 사후 수습처리하기 바쁜 이런 형태로 사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부지도 압축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단수 후보인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부지 하나를 검토해보고 맞나 아니냐해서,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뉴스

최은희, 전주오픈 국제태권도 조직위 감사패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전주오픈 국제태권도 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 의원은 평소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국제태권도대회 유치에 적극 앞장서는 등 지역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수상했다.

최은희 의원은 "태권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 고유의 전통무도이자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스포츠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라며 "이번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성공개최로 전북이 태권도 중심도시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